

# 종족 보존의 과학

# 족보

글\_ 이종호 과학저술가 mystery123@korea.com



**족**보를 만드는 이유는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동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성은 혈족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류 사회가 시작되는 원시시대부터 유사한 관념을 갖고 있었다고 추측

한다. 원시 사회야말로 혈연을 기초로 모여 사는 집단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씨족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고 대가 멀어질수록 서로의 유대 관계를 알 수 없게 되자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해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동족 의식의 도구

성을 처음으로 사용한 민족은 한자를 발명한 중국이었다. 초기에 성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하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명이나 산, 강을 성으로 삼았다. 신농 씨의 어머니가 강수에 있었으므로 성을 강 씨로, 황제의 어머니가 신수에 살았으므로 성을 신씨로, 순왕의 어머니가 요허에 있었으므로 성을 요 씨로 한 것 등이다.

우리 나라의 성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 문화를 수입한 후에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시조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기 때문에 고 씨(高氏)라 했고 신하들에게 성을 사성(賜姓, 임금이 공신에게 성을 내려주는 일)

했다고 적었다. 백제는 온조가 부여 계통에서 나왔다고 하여 성을 부여 씨(夫餘氏)라 했고 신라는 박(朴)·석(昔)·김(金) 씨의 전설이 있으며, 신하들에게 성을 '사성' 했다는 기록이 있다. 백성(百姓)이란 말은 백 사람에게 성을 주었다는 유래에서 나온 말로 성을 가진다는 것은 지배층임을 의미한다.

학계에서는 고구려는 장수왕(419~491), 백제는 근초고왕(346~376) 때부터 성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에 신라 진흥왕(540~576)의 순수비에 나타나는 인명을 보면 성을 쓴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정보다는 본을 썼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성은 점차 널리 보급되어 조선 초기에는 평민, 후기에 이르러서는 천민층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다. 이런 사정에서 더 이상 성의 유무만으로는 신분的高低나 가문의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의 사대부 또는 명문 가문에서는 그들의 가문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족보라는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족보의 연원은 본래 중국으로, '제계'라 하여 왕실의 계통을 적은 데서 유래한다. 중국 육조 시대에 고관을 배출한 우족(右族)이나 관족(冠族)이 성립하면서 문벌과 가풍을 내세우는 족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조상의 벼슬이나 경력, 계보, 집안 사람의 임관과 승진은 물론 혼인, 교제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사항을 담은 족보를 작성하는 보학이 발달했다. 특히 족보는 원래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관리의 임용에도 중요한 자

료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송대에 들어서자 사적인 용도로 변모하면서 가족을 하나로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유례가 없는 독창적 시스템

족보는 중국에서 유래하였지만 우리 나라로 들어와 한국인의 독창적인 족보로 탈바꿈한다. 우리 나라의 성씨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성명의 구성과 개념이 특이하고 고유한 점이 많다. 성과 본관은 가문을 나타내지만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항렬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인의 성명을 보면 개인 구별은 물론 가문의 계대(系代)까지 나타내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독창적인 작명방법이다.

내용은 시조로부터 차례로 한 세대에 한 칸씩 내려쓰며, 항렬이 같으면 같은 난에 쓴다. 여기에 명(名)·자(字)·호(號)·시호(諡號)를 쓰고, 생몰 연도와 간지·월 일을 쓴다. 관직이라든가 호를 내려받은 사실은 물론 과거에 합격한 사실 등 개인의 경력을 기록하고 배우자의 관(貫)과 성씨 및 부와 조부의 관명과 생몰 연월일도 기록한다.

이 밖에도 묘지가 어디 있으며 그 형태나 방향이 어떤지도 기록한다. 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있는지 없는지, 양자를 들인 것인지 아들을 양자로 보낸 것인지, 또는 적자와 서자, 아들과 사위를 구별하기도 했다.

우리 나라에서 발간된 최초의 족보는 문화 유씨의 『영락보(榮樂譜)』라고 알려져 있으나 서문만 전해지고 실물은 없다.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성종 7년(1467)에 간행된 안동 권씨의 족보 『성화보(成化譜)』이다. 태종 때 집현전 대제학이었던 권 체와 세종 때 영의정이었던 권 람 부자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족보의 서문은 서거정(徐居正)이 작성했다.

조선 초기의 족보는 일반적으로 사위나 외손도 그 성을 기재했으며 아들·딸(딸은 사위 이름으로 기재)의 기재 순위는 출생 순위, 즉 연령순으로 기재했다. 특히 친손을 19대손까지 기재했다면 외손도 19세손까지 기재했다. 반면에 조선 후기의 족보는 출생 순위와 관계



광주이씨 대동보

없이 언제나 아들을 먼저 기재하는 '선남후녀'이다.

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족보에서 자녀를 연령순으로 기재하는 것은 인륜의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이고 선남후녀의 방식은 본가, 즉 동족원을 보다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족보에서 선남후녀의 방식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본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인류학자들이 한국의 족보를 연구한다. 그만큼 한국의 족보는 독특함과 연구할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 시기 족보는 양반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양반의 신분적 특권은 고귀한 혈통과 뛰어난 조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일부 양반 가문에서는 왕실이나 이름난 귀족들을 시조로 두기 위해, 혹은 이들의 계보에 자신들을 접속시키기 위해 족보를 편찬하면서 본관을 바꾸거나 조상의 세계와 파계를 조작, 윤색하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족보는 설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왕조실록』 CD-ROM이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시대의 정치·사회·문화 등 다루지 않은 분야가 없다. 특히 주요 정부 관원의 임명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일일이 검증하면 곧바로 판독할 수 있다. 족보의 진정한 의미는 어느 선조가 고위직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씨족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㉔